



광주시립오페라단이 5~6일 콘서트 오페라 ‘박하사탕’을 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펼친다. 오른쪽은 2000년 개봉작 ‘박하사탕’의 한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5·18영화 ‘박하사탕’ 오페라로 만나다

“1980년 5월 도청 앞에서 ‘빛의 힘’이 어떻게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는지, 그 전말을 오페라에 담아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작곡가 이진용)

폭력의 연대기에 저항해 ‘반독재 민주화’를 부르짖던 40여년 전 구호는 광주에 상흔을 남겼다. 아직도 오뚝한 도청 앞 탄흔과 유족들의 통한은 광주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처럼 다가온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이 5·18민주화운동 기념 콘서트 오페라 ‘박하사탕’을 오는 5~6일(오후 7시 30분) 광주 예술의전당 잔디광장 야외무대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2000년 이창동 감독의 원작 영화 ‘박하사탕’을 작곡가 이진용이 콘서트와 음악을 결합된 ‘콘서트 오페라’ 형태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공연은 사실에 기반하는 ‘베리스모 오페라(사실주의 오페라)’를 표방하는데 그날 5월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9년 광주에서 시연회를 시작으로 2020년 온라인 중계, 2021년 국립극장 전막 공연 등을 연일 매진하며 ‘무비라(무비+오페라)’라는 신 조어를 만드는 등 화두에 올랐던 작품이기도 하다.

특히 원작 ‘박하사탕’에서도 기적소리 너머로 들리는 주인공의 절규, 혹은 비명 같은 ‘나 돌아갈래’ 등의 외침은 5·18부터 1987년 6월 민주항쟁까지의 아픔과 슬픔을 집약적으로 표현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창동 영화, 작곡가 이진용 재창작 시립오페라단, 5~6일 예술의전당

이번에는 ‘박하사탕’의 실제 배경인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오페라로 재창작해 선보이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작품은 파국의 현대사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어느 남자의 이야기를 초점화한다. 시놉시스에 따르면 1999년 5월 들쭉이 핀 강가 언덕의 모습을 비추며 시작하는데, 봉우회원들과 미애, 박병장 등이 야유회를 즐기고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인공 김영호가 나타나 ‘나 돌아갈래’를 외친다.

가리봉동에서 일하던 평범한 영호의 외침은 작중 시간을 1998년 가을 망월동 모역으로 되돌려놓는다. 그 곳에서 모비들은 애가(喪歌) ‘망월동의 노래’를 부른다. 또 ‘누구였나?’, ‘너, 너였어’, ‘나쁜놈’, ‘뺨으니까 됐어’ 등의 레퍼토리도 각각 3~5분 남짓 올려 퍼즐 예정으로 직설적인 제목들은 광주의 아픔을 되짚어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987년 5월 경찰서로 돌아가 고초를 겪는 3장 대목, 1980년 5월 공수부대 투입 및 전남도청 앞 항쟁을 보여주는 4~5장은 클라이맥스. 끝으로 1979년 가

을날 언덕을 재차 보여주는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

테너 김영호가 가리봉동에서 일하던 청년 ‘영호’역을 맡는다. 공수부대원이 되어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돼 비극을 경험하는 인물이다. 소프라노 윤순임이 김영호의 첫사랑 역할을, 바리톤 강현기가 김영호의 상사인 강형사, 강중위 역할을 연기한다.

아울러 천안시향 상임지휘자 구모영(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독일 아헨 오페라극장에서 활동한 연출가 이혜영, 극작가 겸 연출가 조광화는 대본을 썼으며 한예중 총장 및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한 이진용이 작곡했다.

공연에 앞서 공연 상황을 미리보는 ‘콘서트 오페라 무료관객 아카데미’도 준비돼 있다. 5~6일(오후 6시) 광주시립오페라단 스튜디오에서 각각 작곡가 이진용과 문화칼럼니스트 최철을 특별초청해 작품 감상 및 이해를 돕는다.

정상연 오페라단 운영실장은 “종래 무겁고 어둡게만 비춰졌던 5·18이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 넓은 광장에서 펼쳐진다”며 “오페라가 전하는 메시지를 광주시민들이 향유하고 민주주의의 내일을 만들어 갈 ‘비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료 관람. 사전예매는 티켓 링크(비지정석).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테너 김주형, 첼로 박효은

‘Who am I?’ 디아스포라음악회

‘김영숙’전 연계...오늘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디아스포라의 삶의 애환과 희망을 주제로 한 음악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 하정웅미술관은 5일 디아스포라를 모티브로 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디아스포라음악회는 ‘Who am I?’(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현재 개최 중인 하정웅컬렉션 재일디아스포라작가전 ‘김영숙-삶, 그리고 해후’(10월 29일까지)의 연계 행사로 열린다.

음악회는 총 3부로 구성됐으며 피아노, 현악기, 성악, 즉흥곡 연주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1부는 ‘바이올린 소나타 ‘정추 1923-2013’ 중 1악장’으로 문을 연다. 남구 양림동에서 태어난 작곡가 정추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자리잡은 후 민요 1000여 곡을 채보해 고려인 가요를 보존·계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유태인 홀로코스트 영화 선들러리스트에 삽입된 곡인 ‘선들러리스트를 위한 데마’도 연주된다. 특히 1부에서는 장난감 플라스틱, 농악 분무기에서 재탄생한 업사이

클 현악기인 유니크 바이올린, 첼로가 사용된다.

2부 ‘향수’는 일제강점기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한 순수시문학과 시인들의 작품을 토대로 한 가곡집 ‘순수’와 봉선화, 오빠생각, 고향의 봄, 매기의 추억 등이 불린다.

마지막으로 3부는 익명의 사연을 바탕으로 피아노 즉흥곡을 연주한다.

이번 음악회는 크리에이티브 아트(대표 이승규)가 기획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바이올린 이수산, 첼로 박효은, 소프라노 박준영, 남성 성악그룹 쇼인어스(테너 김주형, 노범주, 바리톤 강혜성) 등 청년 음악인들이 출연한다.

오병희 학예사는 “이번 디아스포라음악회는 개최 중인 하정웅컬렉션 재일디아스포라작가전 ‘김영숙-삶, 그리고 해후’의 연계 행사”라며 “재일교포 3세대 작가 김영숙의 삶과 연계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산목회·한마음회 회원들 작품 한자리에

13일까지 기획전,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직장동료와 학창시절 친구 등을 제외하고 20년이 넘는 시간 인연을 이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동일한 관심사에 동일한 목표를 두고 함께 기량을 연마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예술 활동을 토대로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모임이 전시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남대 평생교육원 한국화반(지도 백현호) 재학생들 모임인 산목회와 졸업생들 모임 한마음회는 ‘2023 산목회, 한마음회 기획전’을 연다. 오는 1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이들 모임이 결성된 것은 20년이 넘는다. 한마음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전남대 한국화반 연습실에 모여 그림을 그렸다. 산목회 회원들은 대부분 개인 화실에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지금까지 매년 전시를 개최했으며 다수의 회원들이 각종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전시는 회원 46명이 50작품 이상을 출품했다. 92세 원로회원부터 30대 젊은 회원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민호기작 ‘구룡송’

양하다. 이들은 난초를 시작으로 10군자를 그리고, 이후 산과 나무를 모티브로 한국화를 배운다.

이번에 출품된 회원들의 작품에선 오랜 시간 공력을 쌓은 흔적들이 보인다. 민호기 작가의 ‘구룡송’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기품있는 노송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인생의 연륜이 담긴 나이 지긋한 어른의 담담한 표정을 보는 것 같다. 풍상고절을 모두 겪고 난 뒤 삶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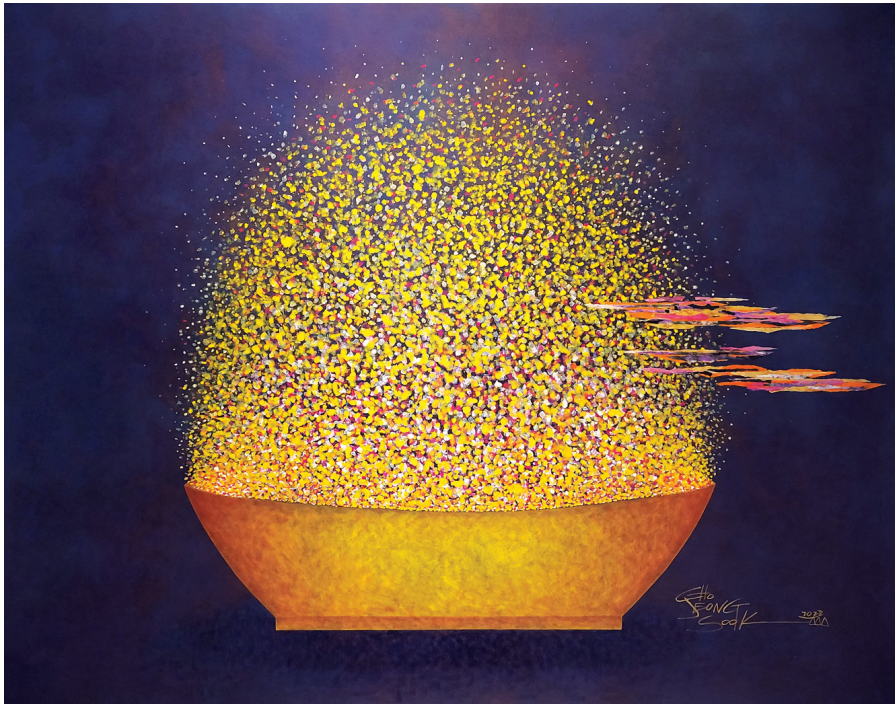


나연나 작 ‘고귀한 만남’

지혜를 터득한 현자의 모습도 읽혀진다.

나연나 작가의 ‘고귀한 만남’은 하나의 꽃이 피기까지의 시간을 만남이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려한 꽃 이면에 드러워진 무성한 잎, 기다란 줄기는 그 자체로 인연의 소중함을 환기한다. 잎이 없는 꽃, 줄기가 없는 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산목회, 한마음회 회원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작품 전시를 준비했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더욱 작품 활동에 매진해 저마다의 성취는 물론 의미있는 문화 형성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밥꽃-보라빛 향기’

꽃에서 밥을, 밥에서 꽃을 보다

조정숙 개인전, 13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밥에서 꽃을 느끼다.

밥과 꽃을 동일한 의미로 바라보고 작품으로 형상화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꽃이 여러 이파리와 꽃술 등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밥 또한 낱알 하나하나가 모여 한그릇의 밥이 된다. 생명이 담긴 꽃에서 밥을 보고, 한가득 담긴 밥에서 꽃을 보는 것이다.

조정숙 화가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오는 13일까지 개인전을 열고 있다.

주제는 ‘day, stay’. 이번 전시는 조선대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 청구전을 위한 전시로 기획됐다.

전시는 모두 세 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행복한 순간들’에서는 작가는 전시 주제를 제시하고 의의와 의도를 드러내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한국 전통 재료인 분채와 먹을 이용하거나 한지를 염색해 붙이는 등의 방법을 탐구한 작품들이다.

‘밥꽃’에서는 꽃에서 밥을 느끼고, 밥에

서 꽃을 보는 심미적인 주제를 형상화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밥꽃’은 세상을 하얗게 덮은 눈꽃처럼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지막 ‘중첩과 염색’에서는 한국화를 그려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채색과 작업을 진행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수십 번의 중첩에 의한 박색의 효과, 우리나라는 색깔 위에 묵단, 먹으로 구체화한 이미지는 색다른 묘미를 선사한다.

조정숙 작가는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언어와 사고들을 작업에 담아내고 싶었다”며 “삶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부정적인 순간들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도전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작가는 제34회 선묵회 정기전을 비롯해 조대미술 70년전 등 다수 전시에 참여했으며 제34회 한국화 특장선 특선, 제58회 전남도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 꿈나무들 축제’ 전국청소년예술제 성료 본선 20팀 경합 김동혁 등 6명 대상

예술 꿈나무들의 ‘축제의 장’이자 지역예술인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전국규모 대회가 성료했다.

한국예총광주광역시연합회(회장 임원식·광주예총)는 ‘2023 제3회 전국청소년예술제’ 본선 및 시상식을 최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진행했다.

예향 광주에서 예술 꿈나무들을 발굴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펼쳐졌다. 국악, 무용, 연예, 음악, 연극 5개 부문 경연에 총 200여 팀 800여 명이 지원해 지난달 4일 예선을 마쳤다.

본선 및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 1등을 기록한 총 20팀이 경합했으며 유튜브에서 경연 실황을 생중계했다. 대상 수상자는 상금 150만 원, 최우수상 상금 50만 원, 우수상은 상금 50만 원, 장려상은 상금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최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진행한 ‘2023 제3회 전국청소년예술제’ 시상식 장면. <광주예총 제공>

초등부 대상은 김동혁(연예, 전남), 중등부 대상은 서강중 장진서(무용, 광주), 고등부 대상은 조현서 외 3명(국악, 광주, 예술고)이 수상했다. 대학부는 전남대 출신 김혜린(음악, 광주) 학생이 수상했다.

광주예총 임원식 회장은 “예향 광주에서 펼쳐진 전

국청소년예술제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예술 인재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적·질적으로 대회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 문화예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